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통신사창설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주신 불멸의 령도

백 역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새형의 혁명적인 통신사창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통신사창설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주신 불멸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지체없이 새형의 통신사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것이다.

해방후 출판보도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국가의 모든 행사보도를 담당한 중요한 보도기관, 국제적사변들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을 대변하는 위력한 언론기관인 통신사를 빨리 창설하는것이였다.

통신은 신문, 방송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당출판보도체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 신문, 방송과 함께 통신이 있어야 기본구성부분을 다 갖춘 전일적인 당출판보도체계가 세워져 출판보도물의 전반적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질수 있다.

해방직후 출판물들에서는 공화국북반부 각지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사실과 사건들을 제때에 광범히 취급하지 못하고 공화국남반부정세와 국제정세보도는 거의나 반영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보도의 통일성도 보장하지 못하고있었다. 지어 일부 출판보도물들에서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동적출판물의 론조와 자료까지도 소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출판보도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편향은 당과 정부의 립장을 대변하며 국내외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장악하여 신문, 방송들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통신보도활동을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34(1945)년 12월 20일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국내, 국제정보를 수집장악하며 언론출판기관들에 보도자료를 통일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에 보도하는 새형의 통신사를 빨리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우리 나라에 세워야 할 통신사는 그 성격에 있어서 자본주의나라 통신사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통신사로 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해방후 인민이 주인이 된 우리 나라에 세우게 될 통신사는 온갖 착취계급의 반인민적책동과 그들이 퍼뜨리는 모든 반동적사상조류를 짓부시고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통신보도기관으로 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서게 될 통신사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당과 인민정권의 립장을 대변하며 대중에게 진실을 소개선전하는 새형의 통신사로 그 성격을 뚜렷이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 세워야 할 통신사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국가가 직접 장악지도하는 유일한 보도기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 서게 될 통신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적출판보도활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정치성, 계급성, 대중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오직 우리 당과 정권의 립장만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통신사가 출판보도물들이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로 복무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만큼 통신사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서 외국과 국내의 정보를 모두 관할하며 국제사건과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중앙과 지방의 출판물과 방송에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출판보도물의 중추기관으로, 당과 국가의 유일한 대변기관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국가가 직접 장악지도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유일한 통신보도기관을 내올데 대한 방침은 출판보도물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훌륭히 실현하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를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통신사창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4월 통신사와 같은 언론기관이 없었던탓으로 우리에게는 통신사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이 부분의 설비와 기술자들도 없는 형편이지만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통신사창립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갖추어나갈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통신사건설에 구현하도록 하신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첫 주체형의 통신사를 가장 빠른 시일안에 창설하고 당과 정부의 립장을 대변하는 권위있는 언론기관으로 급속히 강화발전시켜 새 민주조선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한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통신사창설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주신 불멸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통신사창립준비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통신사창립준비위원회를 무어주시고 통신사창설사업이 당의 지도밑에 국가와 사회의 깊은 관심속에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사창립준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에 관계부문 일군들을 적극 망라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통신사에 배치할 일군들의 선발 및 양성문제, 기구문제를 비롯하여 통신사를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의 해결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뿐만아니라 통신사를 내오는 일을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면 당과 국가기관의 책임일군들과 언론계의 대표들로 통신사창립준비

위원회를 내오며 통신사를 꾸리는 사업을 당이 직접 틀어쥐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통신사창립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여시고 준비위원회의 사업방향을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을 통신사창립준비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통신사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되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서게 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통신사창설사업은 당의 지도밑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통신사창설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온갖 반혁명적이며 이색적인 요소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통신사를 창설하는 사업은 출판보도분야에 나타난 부르조아자유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출판보도물들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이었던것만큼 이 사업은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었다.

출판보도물들에 대한 당의 지도를 약화시키려고 책동하고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은 통신사창립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들고나오면서 통신사창립준비사업을 반대하여나섰다.

통신사창립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그들은 《통신사는 큰 나라에서나 필요한것》이라느니, 《언론출판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것》이라느니 뉘니하면서 우리 나라에 통신사가 창설되지 못하게 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본질상 출판보도물들에 대한 당의 통일적지도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른 한편 통신사창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기관본위주의를 부리는 일부 일군들의 편협한 사업태도도 통신사창립준비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자기 기관의 기자, 번역원, 무전수들을 새로 창립될 통신사에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받고도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이에 선뜻 응하려 하지 않았다. 지어 일부 일군들은 앞으로 통신사에서 일해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본에서 공부하였거나 과거에 일제기관에서 복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함부로 의심하면서 덮어놓고 돌려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창립준비사업과정에 나타난 이러한 편향을 극복타개하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투쟁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사창립을 반대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3월 관계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들고나온 부르조아자유주의와 사대주의적경향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면서 통신사창립문제를 놓고 더는 허튼소리를 떠벌이지 못하게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언론출판활동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통신사가 큰 나라에만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대주의적경향이라고 엄하게 지적하시고 쓸데없는 말을 돌리는 사람들과는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사창립준비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부 일군들의 기관본위주의적이며 편협한 사업태도를 바로잡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4월 5일 통신사창립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여시고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기관본위주의와 편협한 사업 태도를 극복하고 통신사창립준비에 주인답게 참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에 이르기까지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통신사일군대렬과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는 사업을 몸소 틀어쥐시고 결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부터 통신사를 창립할것을 예견하시고 통신사에서 사업할 능력있는 일군들을 선발양성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2월 20일 통신사창립방침에서 통신사에 보낼 일군들을 선발하여 보도일군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데 이어 주체35(1946)년 4월 5일에는 통신사창립준비위원회에서 통신사에 파견할 능력있는 기자들을 각 신문사들에서 선발할데 대한 문제, 여러 기관에서 복무하는 외국어소유자들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번역원으로 데려오며 그들이 앞으로 기자, 번역원후비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할데 대한 문제, 무전기술일군들을 선발, 양성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통신사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당보무전실을 잘 꾸려 그것을 앞으로 창설될 통신사의 무전기술집단의 모체로 만드는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통신사창립준비위원회는 통신사에 파견할 기자, 번역원, 무전수, 약전기술자들을 선발양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사창립을 앞두고 통신사창립준비위원회 일군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무전수들과 약전기술자들을 소환하게 하시였으며 이와 함께 각 신문사와 여러 기관에서 우수한 기자들과 외국어소유자들을 통신사에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사업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리하여 통신사창립준비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주체35(1946)년 9월에는 통신사를 창설할수 있는 기틀이 기본적으로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12월초에 통신사창립준비위원회의 한 성원을 부르시여 북조선통신사조직에 관한 결정서와 북조선통신사에 관한 규정을 만들데 대한 임무를 주시면서 초고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밝혀주시고 초고가 다 완성되었을 때에는 몸소 한자한자 지도해주시었다.

북조선통신사조직에 관한 결정서와 북조선통신사에 관한 규정이 완성됨으로써 통신사 창설을 위한 준비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주체35(1946)년 12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통신사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었다.

통신사의 창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혁명적통신 보도전통의 직접적인 계승발전이며 수령님의 주체적인 통신보도사상과 혁명적인 통신사건설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출판보도부문의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통신사창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도활동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다.